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박재희
인문학공부마을 석천학당 원장

산전수전(山戰水戰) 다 겪은 장군은 애초부터 지는 싸움은 하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의대 정원 확대 정책으로 촉발된 의료계 파행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추석 기간에는 '중추기절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인사 대신에 아프지 말라는 인사가 유행하였다. 지금 겪고 있는 의료계 파행이 해결된다고 해도 그 시간 동안 고통받은 사람은 국민이다. 애초부터 산전수전 다 겪은 능숙하고 유능한 장군이 나서서 이 문제를 지휘했어야 했다.

'산전(山戰)에서는 내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기동하여 상대를 압도해야 한다. 수전(水戰)에서는 상대가 물을 건널 때 기습하여 승기를 잡아야 한다.택전(澤戰)에서는 내가 가진 무기와 군장을 포기하더라도 늘어서 빨리 빠져나와야 한다. 육전(陸戰)에서는 언제든 지 도망칠 수 있는 후퇴 경로를 확보해야 한다.' '손자 병법', '행군(行軍)'편에 나오는 '산전수전택전육전

산전수전(山戰水戰)

(山戰水戰澤戰陸戰)을 모두 겪은 장군의 군대 운영에 관한 내용이다.

산전(山戰)의 핵심은 나의 의도와 생각을 드러내지 말라는 것이다. 높은 산악지역을 이동할 때는 적에게 노출되기가 쉽다. 나의 실체를 숨기기 위해서 능선을 피하고 계곡(谷)으로 이동로를 선택해야 한다. 의사 정원을 늘려 국민의 의료 복지 수준을 높인다는 목표까지는 좋았다. 문제는 정부의 의도를 모두 드러내고 노출한 데 있다. 상대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나의 명분만 강조한 것은 결코 현명한 정책이 아니다. 2000명이란 선연적 숫자까지 정해 놓고 전투에 임한 관계기관은 산전을 겪어보지 못한 리더라고 할 수밖에 없다.

수전(水戰)의 핵심은 상대의 빈틈을 찾아 공격하라는 것이다. 상대가 강물을 건너는 데 집중하고 있을 때를 놓치지 않고 기습하여 승기를 잡아야 한다. 강물을 반쯤 건넌을 때 기습하면(半濟而擊之, 반제이격지) 쉽게 이길 수 있다. 상대가 전열을 정비하여 정식으로 싸우기 전에 이미 싸움을 끝났어야 한다. 전쟁은 싸워서 이기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승리의 조건을 만들어 놓고 확인하러 들어가는 것이다. 수전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상대와 정면 승부에 집착한다.

택전(澤戰)의 핵심은 전투에서 곤경에 빠졌을 때 명분을 버리고 빨리 높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높에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명분 찾고 자존심을 찾았다면 생존은 점점 더 멀어진다. 줄

것은 주고 버릴 것은 버려야 높에서 나올 수 있다. 전쟁의 목적은 승리이지 자존심이 아니다. 의사들의 집단 행동으로 응급실 기능이 마비되고 의료가 파행되었다면 높에 빠진 것이다. 높에 빠진 상황에서 내가 포기할 것은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의료 개혁 정책에 대해 의사들에게 사과하고 처음부터 다시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일회 일비하지 않겠다며 자존심과 명분만 세우다가 결국 환자들의 고통은 배가되고 의료체계는 더 큰 혼란에 빠질 것이다.

육전(陸戰)의 핵심은 출구전략이다. 평지에서 싸울 때는 불리할 때 언제든 빠져질 수 있는 탈출 경로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들어가는 일보다 빠지는 일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주식과 부동산을 투자할 때 과감하게 손절하고 빠지는 일은 용기가 필요하다. 전쟁에서 승패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이다. 패배를 인정하는 일도 전략이다. 훗날을 도모하는 권토중래의 용기가 필요하다.

지도자는 외골수나 한 분야에만 정통한 전문가가 아니다. 산전수전택전육전 모두 겪어보고, 공중전까지 겪어본 사람이 조직을 이끌어야 한다. 명분, 자존심, 독심, 고집이란 뒷에서 벗어나야 국민이 행복하다. 진격과 후퇴의 결정은 오로지 국민의 안전(保民, 보민)과 국가의 지위(保國, 보국)가 우선이다. 그래야 국민이 믿고 지지할 것이다.

종교칼럼

백두에 올라 세상을 바라보라!

-4박5일을 함께 했던 학생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현
광주 중심사 주지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광주시 동구 지역 6개 중학교 48명의 학생들과 인솔교사 6인, '동구 청소년 세계인문지도자 양성위원회' 위원, 진행팀 등 총 66명과 함께 4박5일 일정으로 압록강, 광개토태왕비, 백두산 천지, 여순 감옥 등을 탐방하는 '2024 백두산 국제인문탐방'을 다녀왔다.

백두산 천지는 전생애 나라를 구하고, 상대가 덕을 쌓아야 비로소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청명한 하늘과 새파란 백두산 천지는 구경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다만 날씨 탓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백두산 천지는 우리 한민족의 뿌리이기에 관광이래도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는 결코 천지를 친견할 수 없다는 준엄함이 서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탐방에 나선 여러분들은 모두 처음으로 백두에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천지는 여러분들을 기꺼이 환영했습니다. 새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도저히 현실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푸르른 천지를 친견했습니다. 천지를 만나기 위해 우리는 광주에서 새벽 5시에 출발하여 꼬박 하루를 버스와 비행기, 다시 버스로 이동하였고 또 다음 날 밤나날 이상을 버스로 이동했습니다. 우리가 백두산 천지를 친견하기 위해 이렇게도 많은 시간

을 들여야 했던 것은 남의 나라인 중국을 경유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중국 땅을 거쳐서 간 것이 아닙니다. 천지 정상에서 우리는 현수막 한번 제대로 펼치지 못했습니다. 광개토태왕비에서는 사진은 물론 한국말로 된 설명은 아예 하지도 못했습니다. 중국의 공안은 우리들의 행동을 시종일관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남의 땅에서 온갖 눈치를 보가며 만주별관을 호령했던 광개토태왕과 장수왕 그리고 민족의 영산 백두산을 친견해야만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어른들이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남의 눈치를 보가며 백두에 올랐지만 여러분들은 광주에서 KTX를 타고 한번만에 백두산역까지 가는 그런 세상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선물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바이고, 여러분이 해야 할 바입니다. 이미 백두산 천지가 온몸으로 받아주었으니,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럴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여러분들은 글로벌리더가 되어 온 세계를 누빌 것입니다. 저는 이번 탐방에서 글로벌리더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 요녕성 대련시에 소재한 관동법원과 여순감옥에서 만난 안중근 의사는 항일독립투사이기 이전에 20세기의 글로벌 리더였습니다. 이토 히로부미의 처단은 대한의 독립은 물론 나아가 동양의 평화를 위함이라고 의사는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20세기 들어 전쟁이 끊이지 않던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한중일 3국이 서로 협력하고 화합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여순 지역을 개방하고 공용화폐를 발행하고 평화군을 양성하는 등 동양평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하였습니다. 실로

시대를 앞서가는 혜안이며, 20세기 동아시아가 요구하는 비전이었습니.

중국의 지도자인 주은래는 "동아시아의 항일운동은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처단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중국 역시 안중근 의사를 20세기의 훌륭한 영웅으로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여순 감옥에서 안중근 의사를 담당했던 일본인 간수는 의사의 인품과 선비로서의 기개가 감동해 본국에 돌아가서도 평생동안 의사를 사당에 모시고 기렸다고 합니다.

안중근 의사는 항일운동의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이웃나라는 물론 적까지도 감동시킨 인품의 소유자였습니다. 한중일 3국이 모두 존경했던 의사가말로 전쟁으로 점철되었던 20세기 동아시아의 진정한 글로벌 리더였습니다. 20세기의 시대정신을 온 몸으로 실천했던 안중근 의사를 대하며, 21세기의 글로벌 리더의 자질은 무엇인지 생각해봅니다. 가장 기본은 역시 인격의 수양입니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 하였습니다.修身(수신)이 되지 않고는 그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바탕이 굳건해야 시대의 과제를 올바르게 꿰뚫어 통찰하는 지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생애 큰 복을 지어 백두산 천지를 친견하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글로벌 리더의 모습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스스로修身할 시간입니다. 이웃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세상을 올바르게 통찰하는 지혜를 기을 시간입니다. 그리하여 온 지구 생명들의 평화로운 삶을 위해 노력할 시간입니다.

이번 역사탐방이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잊혀지지 않는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社說

정규시즌 우승 KIA, 타이거즈 불패 신화 잇길

KIA 타이거즈가 2024 프로야구 정규 시즌 우승을 차지했다. KIA는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 17일 SSG와의 인천 원정경기에서 패했지만 2위 삼성이 두산에 지면서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지었다. 18일 기준으로 시즌 종료까지 7경기를 남겨둔 상황에서 2위 삼성을 8경기 차로 밀어낸 압도적인 우승이다.

KIA는 LG에겐 잠시 1위 자리를 내준 적이 있지만 시즌 내내 압도적인 경기력이 기록이 이를 증명한다. 팬들은 기록적인 폭염과 경기침체로 우울한 상황에서도 타이거즈 선수들의 활약을 보며 더위와 시름을 잊었다. 김도영이 신기록을 세울 때마다 '우리 도영이'를 외치며 내 일처럼 기뻐했다.

타이거즈는 지금까지 11번 한국시리즈에 진출해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다. 한국시리즈 불패 신화는 타이거즈만 가지고 있는 진기록이다. 남은 기간 정규시즌 마무리를 잘하고 KS 불패 신화를 이어가 'V 12'라는 새 역사를 쓰길 기원한다.

폭염과 시민 건강 대비할 기후위기 대응 시급

올해 여름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 일수와 열대야 일수가 최고 기록을 보였다. 그해 다른 인명 및 농축산물 피해 등도 역대급이다. 한국의 기후를 표현하던 '삼한사온'과 사계절의 특징이 사라진 지 오래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여름이 5월부터 시작해 9월까지 다섯 달에 걸쳐 맹위를 떨치는 동남아 국가와 비슷한 기후로 변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불과 가스가 사라질 날도 머지않았다. 문제는 여름이 길어지면 기온이 올라가고, 그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는다.

기후 위기와 시민들의 건강을 연계한 국가나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리나라의 폭염을 말할 때 으레 등장하는 절기가 처서(處暑)이다. 예로부터 '처서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비뚤어진다'라는 속담처럼 처서 이후에는 기온이 떨어지며 서늘해진다. 하지만 올해 처서 이후에도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폭염이 길어지면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는다. 기후 위기와 시민들의 건강을 연계한 국가나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리나라의 폭염을 말할 때 으레 등장하는 절기가 처서(處暑)이다. 예로부터 '처서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비뚤어진다'라는 속담처럼 처서 이후에는 기온이 떨어지며 서늘해진다. 하지만 올해 처서 이후에도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폭염이 길어지면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는다. 기후 위기와 시민들의 건강을 연계한 국가나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라지고 귀뚜라미가 하나둘씩 울기 시작한다. 하지만 올해는 처서가 지나고 한달이 다 되도록 폭염이 계속됐다. 심지어 추석이 지나고도 열대야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머지않아 가을의 시작을 10월로 잡아야 할 지 모른다.

올 여름 광주·전남지역 폭염일수는 31.1일, 열대야일 수는 36.3일로 역대 최고이다. 이로 인해 온열질환자도 약 470명으로 역대 최고이며, 온열질환으로 숨진 지역민도 무려 6명에 달한다. 지난 2020년·2021년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와 사망자 수는 3배 이상 늘었다. 이 같이 사람 잡는 폭염은 우리나라 전역을 덮쳤으며 심지어 제주도는 열대야일 수가 73일에 달했다.

이제 폭염을 단순히 기후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노인과 취약층 건강, 노동 환경 등과 연계해 인명 피해를 막을 대책을 세워야 할 때이다. 필요하다면 기후와 복지를 아우르는 행정 직제도 만들어야 한다.

無等鼓

'명절 민심'에 따라 선거 판세가 달라진다. 정치권 안팎에서 정설처럼 여겨지는 말이다. 지난 2008년 18대 총선부터 2020년 21대 총선까지 4번의 총선 결과를 살펴보면, 전년도 추석 직후에 실시된 여론조사와 이듬해 총선 결과가 거의 일치하면서 '명절 효과'는 일종의 '과학'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따라 명절 연휴를 앞두고 각 정당 지도부뿐 아니라 지역구 의원들도 민심을 잡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현역 국회의원은 서둘러 지역구를

찾아 표심을 호소했다. 민주당으로서 이번 재선거에서 '뺄발 사수'만큼이나 지지율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호남 재선거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의 전조전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각 당의 지지율 변화에 따라 지역 정가의 지형도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혁신당도 조국 대표 영광과 곡성에 집을 얻은 뒤, '한 달 살이 선거운동'에 돌입하는 등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일부 선거구에서 진보당의 지지율도 두 자릿수를 넘기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추석 민심

이처럼 이번 광주·전에서 고향을 찾는 유권자 등을 대상으로 주요 고속도로 진출입구와 터미널·기차역 등지

남지역 재선거는 '민주당 경선이 곧 본선'이 됐던 관행에서 벗어나 '본선을 지켜 봐야 하는 선거'라는 점에서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에 각 당도 지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열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번 추석 이후 민심이 어느 당의 손을 들어줄지 여부도 관심사지만 모처럼 '본선 경쟁'을 통해 정치권이 지역 민심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대규모 선거 지원단을 꾸리

/오광록 서울취재본부 부장 kroh@

기고

충장축제로 우리는 대동 세상을 이룬다

장소마다 명칭을 붙여 축제의 개·폐막식과 충장 피아아트 페레이드가 진행되는 '대동의 길'을 시작으로 시민 주도형 체험과 놀이를 할 수 있는 '만남·열광·정열·상만의 거리', '행복·사랑·젊음·나눔의 골목', 제3회 광주 버스킹 월드컵이 열리는 '환희의 광장'까지 다채롭다.

매회를 거듭할수록 충장축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만큼 부담감도 없잖아 있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축적돼 온 역사와 전통의 맥을 이어온 충장축제의 성공 개최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뜻을 모아왔고, 결과 역시 만족스러웠다.

지난해 성년을 맞은 충장축제를 찾은 국내외 방문객만 약 120만 명이니 제대로 입증한 셈이다. 이 기세를 몰아 올해 처음으로 '충장축제 D-50 기념 대국민 발표회'를 열고, 예년과 달리 '대동 축제'를 위한 3가지 차별화 전략을 세웠다.

그 첫 번째가 조선평화사업과 업무협약을 맺고 축제 관련 과정을 개설, 전문 교육과 컨설팅을 받은 '충에 기획단'을 참여시킨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대국민 발표회를 통해 내외빈 주요 인사와 300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 '가장 빛났던 추억의 열정으로, 충장축제를 밝힐 불을 함께 피워내자'는 의미를 담은 의기투합 세리머니를 선보인다는 점이다. 충장 의상실, 명인명장과 함께 하는 충장 레트로 체험 여행, 충장축제 Build up 추억 오솔 모테부러, 아트 스트리트, 금남지하도상가 대축

제 등이다. 무엇보다 충장축제하면 빼놓을 수 없는 백미는 '거리 퍼레이드'다. 이번 충장 피아아트 페레이드는 금남로 5가 역·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 약 1187m 구간으로, 도보로 17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다. 축제가 한창 무르익을 10월 5일 토요일 밤 6시부터 9시 30분까지 1부 불 내려온다 '젊음의 행진', 2부 불 나르다 '추억의 음악, 열정의 순간', 3부 불 사르다 '영원한 추억의 빛'이 구간별로 수놓을 예정이다. 불꽃을 소재로 한 테마는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13개 동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율성을 극대화시켰다. 각 동별 가장 빛났던 최고의 순간을 담은 상징 모뉴먼트를 제작, '열정의 불꽃'을 운반해 거리마다 장관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달력을 한 장만 넘기면 '제21회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가 목전에 와있다. 올해는 일반적인 관람형 축제가 아닌,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함께 만들어 가는 '대동 축제'의 모습을 갖추고자 직원들은 물론 많은 분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열정을 불태웠다. 함께 힘을 모아 원하는 목표를 이뤄보자, 맑은 습지만 실행에 옮기는 건 혼자만 잘해서는 결코 이뤄질 수 없다. 그래서 '대동(大同)'이 어렵고도 위대한 일이다.

국내 최고의 권위 있는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에서 8년 연속 수상해 온 충장축제가 열리는 10월 2일부터 6일까지 닷새간 금남로와 충장로에서 우리만의 '대동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귀한 걸음 하시어 빛내주셨으면 한다.



임택
광주 동구청장

'변성기에 접어든 아이들의 목청은/영판 영망이다/가락이며 음정은 고사하고/기본적인 박자조차 따라주지 못한다/그러나 그들의 목청은 싱그럽다/(중략)/그들의 목청 위에 나는/내 해먹은 목청을 엮어본다/목청과 목청이 섞여 강물이 되어/흘러가기 시작한다/화룡이다 드디어 우리는/하나를 이룬다'. 나태주 시인의 '대동(大同)'이라는 시(詩)의 일부 구절이다. 시인의 작품을 인용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바로 오는 10월 성년을 넘어 글로벌 축제로 도약 중인 '제21회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가 열리는데, 올해 특별히 축제의 주역인 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획하고 만들어 가는 '대동 축제'로 펼쳐지기 때문이다.

'대동(大同)'이라 하면 다른 세력끼리 하나가 된다, 세상이 변형하여 화평하게 된 이상향, 나아가 대동 세상을 꿈꾸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충장축제는 '충·장·발·광·다시 타오른 열정, 영원히 빛나는 우리'라는 주제에 맞춰 축제의 주 무대인 금남로와 충장로 전역과 5·18민주광장, 예술의 거리 일원이 곧 '대한민국 최고의 놀자판'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각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 편집인 崔宰豪 | 논설실장 蔡熙鍾 | 편집국장 崔權一 | 제작국장 柳漢洙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 (구독 신청·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 경영지원국 220-0515 |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 문화부 220-0624 | (FAX 222-8005) | (FAX 222-0195)
정치부 220-0634 | 예향부 220-0692 | 기획관리국 227-9600 |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48 | 여론매체부 220-0661 | (FAX 222-0195) |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 사진부 220-0693 | 디자인실 220-0536 | 서울지사 02-773-9331
제2사회부 220-0680 | 디지털부 220-0697 |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